

서구인 특성 부합 '실용불교' 확산

해외불교칼럼

오늘날 불교는 서구사회에 확산되어가며 서구인들의 정신세계는 물론 현실인식 및 대응방식에 있어서도 큰 변화를 불러일으킨다. 이제 서구인들은 불자든 아니든 불교철학을 통해 오랫동안 독과점적 신앙체계 하에서 당면시되어온 어이 없는 급기와 제약으로부터 과감히 탈출하는 한편, 이른바 '종교'라는 감옥에 강제입류가 되어온 '나'를 되찾는 자아복원의 신선한 해방감을 체험하고 있다.

또한 그들은 불교철학의 보편타당성 및 실용성을 바탕으로 여법(如法) 수행과 실생활을 병행하고자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바, 그 가지적인 현상 중 하나가 최근 들어 움직임이 두드러진 실용불교(Pragmatic Buddhism)의 출현이다.

미국 중남부지역을 중심으로 태동한 실용불교는 서구사회에 접목하는 새로운 불교운동의 한 단면이다. 이는 자치 참여 불교와 혼용될 수 있으나 기본취지와 적용범주 등 여러 측면에서 구분된다. 실용불교는 역사적 실존인물인 시타르타의 선구적인 계몽사상을 현대 서구인의 생활과 사고에 적절히 원용, 응용하려는 시도다. 이 흐름을 알자면 먼저 실용주의에 대한 사전적 의미부터 잠시 살펴보는 것이 바른 순서다. 이하 간추린 내용이다. 실용주의(pragmatism)는 20세기 미국문화의 대표적 특성 중 하나며 간혹 실용주의(practicalism)나 기능주의(functionalism)



미국인들은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불교를 받아들여 현실에 적용하고자 노력한다.

로 쓰기도 한다.

미국 중남부지역을 중심으로 태동한 실용불교는 서구사회에 접목하는 새로운 불교운동의 한 단면이다. 이는 자치 참여 불교와 혼용될 수 있으나 기본취지와 적용범주 등 여러 측면에서 구분된다. 실용불교는 역사적 실존인물인 시타르타의 선구적인 계몽사상을 현대 서구인의 생활과 사고에 적절히 원용, 응용하려는 시도다. 이 흐름을 알자면 먼저 실용주의에 대한 사전적 의미부터 잠시 살펴보는 것이 바른 순서다. 이하 간추린 내용이다. 실용주의(pragmatism)는 20세기 미국문화의 대표적 특성 중 하나며 간혹 실용주의(practicalism)나 기능주의(functionalism)

범주에 포함된다.

서구불자들이 인도, 중국, 티베트, 일본 등 동양의 불교 영향권에서 받아들인 불법을 수행해온 지는 이미 오래다. 그러나 그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동양 불교국가들의 고유한 전통방식으로 서구사회에 제시된 불교철학과 불법의 일부는 자못 생소하고 난해하여 적응하기 꽤 어려운 경우가 있다.

바꿔 말해서, 동양의 전법사들이 지닌 서구현시사정에 대한 기본지식과 언어소통 등 사전준비가 몹시 부족할뿐더러, 유일신의 종교관 및 문화차이 등에 관한 대응방안도 초보수준을 면치 못한다. 그런 결과, 기독교가 주류를 이루는 서구사회

의 사부대중이 스스로 낮은 불교에 다가와 그들의 믿음과 삶을 불법에 맞춰주기만을 바라는 딱한 모양새를 노출하고 있다. 전법의 자세가 이처럼 천진하거나 미숙하다보니,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홍보는 고사하고 불교의 참된 교의마저 오해 또는 왜곡되는 사례도 적잖았다. 이러한 현실을 바로잡고자 마침내 미국의 불자들이 직접 나섰다.

2006년 새 불교승가(New Buddhist Sangha), 즉 일종의 불교사회공동체가 미주리 주의 세인트루이스에 설립된 것이다. 처음엔 '미국선불교종단'이란 이름의 작은 동아리로 시작한 이 단체는 자신들이 추구하는 불교이념을 명시한 명칭, 즉 '실용불교종단(Order of Pragmatic Buddhism)'으로 개칭하고 저변을 넓혀간다. 이 종단을 이끄는 집 윌켄스도반 등은 실용주의철학과 중국의 선, 그리고 선불교를 상호 보완하여 미국 특유의 교의를 창출했다.

실용불교는 2500여 년 전 시타르타가 자신의 가르침을 당대의 제반 현실상황에 적용하고자 진력했음에 주목하고, 그가 펼친 참 진리의 동질성을 현대 서구사회에도 조화롭게 접목시키자는 시공을 초월한 불교혁신운동 중 하나다. 실용불교는 현실을 직시하고 생동감이 넘친 서구불교의 또 다른 모습이다. 이를 지켜보며, 서구불자들이 다름아닌 새로운 길잡이가 되어 오히려 동양불자들을 이끌어갈 날이 멀지 않았음을 문득 떠올리게 된다.

출처: TPB, IEP, 번역: 성휴 스님

월드스타 ★ 불심도 스타

올리버 스톤 ④

'위험한 자유' 꿈꾸던 청년



유복하고 순탄한 유년기를 보내던 올리버 스톤에게 느닷없이 절망의 파도가 거꾸 치고 든다. 아버지의 불륜으로 인해 부모가 이혼을 하고 아버지의 사업마저 파산 지경에 이르러 아들의 대학 교육조차 감당하기 어려워지자, 그는 지금껏 누리왔던 미국 상류층의 모든 특권이 사라져가는 참담한 현실을 실감한다. 그가 고교 1학년 즈음인 당시 아프리카 전역에는 모잠비크, 앙골라, 콩고 등의 내란이 격화되어 외국인부와 용병사단이 번성한다. 엄청난 혼돈과 자포자기의 늪을 헤매던 그는 자신을 운명이란 저울에 얹어두고 '죽나 사나' 지켜보고자 외국인부대에 들어가려한다. 그런데 그 고교를 마친 뒤 이듬해 미국이 베트남 전쟁의

취하며 나름대로의 니르바나를 그린다. 분노든 좌절이든 우울이든 그 뿌리는 대체로 같다. 즉, 차이 또는 간격 때문이다. 꿈과 현실의 차이, 욕망과 성취의 간격, 미망과 정작(正覺)의 거리, 이 모든 것들이 서로 멀어질수록 백팔번뇌의 세까만 칼타르는 더욱 딱딱하게 달라붙는다. 그러던 즈음 그는 베트남으로 떠난다. 현재 호치민 시인 사이공의 변화가 이차 차이나타온인 혼돈에 화교 계 자유 태평양항원 강사로 일할 자리가 생겼기 때문이다.

18세이던 그가 사이공에 도착한 1965년 6월부터 미국의 베트남 무력개입이 본격적으로 확대되어 보병부대와 해병대가 선발전입을 한다. 훗날 타임지의 인터뷰에서 그가 회고한 바에 의하면 당시 미군들은 아무런 까닭도 없이 총기를 난사하며 돌아다니기 일쑤여서 광란의 무법천지가 따로 없었다. 그러나 그건 군기(軍紀)실종이나 난동이기보다는 졸지에 베트남전쟁이란 생지옥에 내던져진 젊은이들이 미처 감추지 못한 공포감과 집단히스테리에 가깝다 하겠다.

그는 '나리' 북서쪽에 서 베트남과 화

집안 몰락 후 혼돈과 자포자기에 빠져 상야탑 박차고 나와 소설 창작에 매진

남전쟁의 확전을 결정하자 그는 외국인부대보다는 미군의 파월전투병과에 지원하기로 마음을 바꿔먹는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바로 그때 그에게 예일대학의 인문학부에서 입학허가 통지서가 날아든다. 그 모든 혼란을 홀로 감당할 수밖에 없었던 고작 십대후반 청소년의 외로움이 어떠했는지? 사람이 겪는 가장 큰 고통은 행복했던 지난날을 돌아보는 거라고 한다.

그때가 고통이란 고통과 함께 다가올 때 처절함의 극에 이른다 하는 즉, 아마 그때 그에게는 눈물마저 사치였을 것이다. 아무튼 그는 어찌어찌 학비를 쟁겨서 겨우 들어간 예일대학을 기껏 한 해 동안 오가다 결국 뛰쳐나온다. 그리고 방황한다. 아니면 불가에서 말하는 수운 행각에 나선 건지도 모를 일이다.

당시 그는 조지프 콘래드의 소설 <로드 짐(Lord Jim)>에 빠져들며 주인공과 더불어 정신분열증이라 할 정도의 심리적 공황과 자기비애 속에 허우적거린다. 그런가 하면,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소설 <그리스인 조르바(Zorba the Greek)>에 나타난 무모함과 인하무인의 야성을 보며 '위험한 자유인'이 되길 꿈꾸기도 한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 조지 헤리슨의 나른하고 몽환적인 인도 풍의 음악에 심

고 학생들에게 영어와 수학, 역사 등을 가르치며 따분한 시간을 보내다. 하지만 그것도 고작 반년 남짓, 그는 다시 미국의 상선 함대에 갑판 청소원으로 일자리를 옮겨 뱃사람이 되어보기도 한다.

그 후 그는 잠시 오리건에 머물다가 맥시코의 과달라하라로 떠난다. 그리고 거기서 그 자신이 겪은 동남아시아에서의 체험을 바탕으로 <꿈꾸는 아가의 밤(A Child's Night Dream)>이란 제목으로 장장 140쪽이 달하는 장편소설을 쓰기 시작한다. 그 무렵 그는 아무래도 다시 대학생활이란 걸 좀 더 해보는 게 낫겠다고 마음을 고쳐먹고 예일대학에 복학을 한다.

그런데 소설을 쓰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까먹다보니 학점을 채우기조차 별 뜻이다. 그러자 그는 아예 이번 참에 영원히 상야탑을 박차고 나와 필사적으로 소설 집필에만 매달린 끝에 마침내 완성을 본다. 그러나 어느 출판사 하나도 거들며 봐주지 않는다. 극도로 좌절한 그는 소설 원고를 이스트 강물에 모두 던져버린다. 체면의 끝은 달관인지도 모른다. 마침내 그는 킥킥 웃고 만다. "푸하, 되는 일이라곤 없군(Nothing doing)!"

성휴 스님

달라이 라마 "무슬림 신앙 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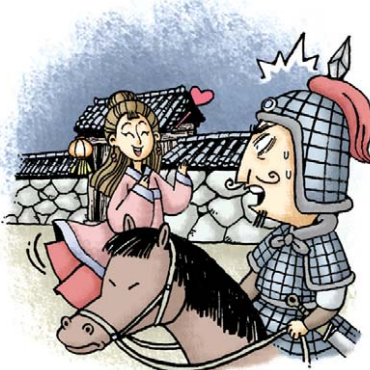
6월 1일 달라이 라마는 최근 인도에서 벌어진 일련의 테러행위로 인해 무슬림사회를 테러집단으로 낙인을 찍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된 '테러에 관한 국제 회합'의 기조연설을 통해 악의적인 극소수의 견해와 행동 때문에 이슬람 전체를 테러집단으로 몰아가는 것은 매우 옳지 않다고 언급했다.

최초로 현지의 자마 모스크를 방문한 그는 "나는 불제자로서 이슬람 교리와 무슬림 신앙을 지지한다"고 무슬림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근년 들어 인도에서 모스크와 열차 등에 대한 다분히 종교적 색채의 위협과 공격이 격화되는데, 이슬람과 힌두교 중 어느 측에서도 그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출처: ANI

But you ruined my honor! 감히 나의 명예를 더럽히다니!

생활영어로 읽는 불교



Long time ago, a famous general was riding his horse way back home. His loyal horse was much like his old confidant and comrade in arms. While the general was dozing, the faithful horse routinely took him and stopped at the door of a fancy brothel he had frequented. Overjoyed to have him back, his steadly whore burst into laughter which awoke him. And he suddenly jumped out of the saddle shouting at his horse, "I've decided not to come here again, but you ruined my honor!" And in a flash, he draw his sword and cut off the neck of his horse. An old monk chuckled at the sad farce, "Such an honorable legend of buck-passing!"

먼 옛날 어느 유명한 장수가 말을 타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다. 그의 충성스런 말은 그의 오랜 심복이자 전우다. 꾸벅꾸벅 조는 그를 태운 말은 으레 그랬듯 그가 자주 가던 고급 유락 앞에서 멈춘다. 다시 찾아온 그가 너무 반가운 나머지 그의 단골 창녀가 웃음을 터뜨리자 그는 선잠에서 깨어난다. 골장 안에서 뛰어내린 그는 말에게 냐다 악을 쓴다. "내가 다시는 여기 오지 않기로 작심했거늘 내가 감히 나의 명예를 더럽히다니!" 그는 순식간 칼을 뽑아 말의 목을 내리친다. 그 슬픈 코미디를 들은 어느 스님이 깔깔했다. "진짜 명예로운 책임전가의 전설이로세."

번안: 성휴 스님, 그림: 이태수

『간화정로』의 저자 '월암스님'의 또 하나의 대작
이번에는 『돈오선』이다

돈오선이란 자기의 성품이 본래 청정(공)함을 요달하여 번뇌를 보리로, 생사를 열반으로 돌려쓰는 실천행이다.

『간화정로』의 저자 '월암스님'의 또 하나의 대작
이번에는 『돈오선』이다

금을 찾기 위해서 광맥을 찾듯이 실참을 위해서는 철저한 수행체제의 이해와 점검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소홀히 한 채 수행을 접근하는 것이 선수행자에게는 가장 어려움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해 못하고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한국불교의 모순이라고 생각할 때 이번 월암 선사사의 돈오선의 저술이 모든 수행자들에게 귀감의 지침이 될 것이다.

- 설정 스님 (덕승총림 주지)

월암스님은 지금까지 '돈오'(즉각 깨달음) 이후 '담음'의 문제로 성철 선사-보조 국사의 문도들 사이에서 감정적 대립만으로 치달으면서 간과해 버린 논쟁의 역사성과 현실적 맥락들을 하나하나 풀어헤치고 있다.

- 한겨레신문

"그간의 돈-점 논쟁이 경쟁적이고 소모적이었다."고 반성하며 "다양한 논쟁수행론을 회통적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조심스럽게 펼친다.

- 불교신문

돈오선의 근원적 가치를 인식할 때 돈점논쟁의 뿌리와 결구지를 함께 파악할 수 있다는 인식, 그것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수행하고 어떻게 깨달을 것인가 하는 물음에 대한 답이기도 하다.

- 현대불교신문

간화정로 看話正路
글 월암月庵 | 512면 | 18,000원

클리어마인드 02)2198-5151